

# 북

## Books

# 모택동은 인천상륙작전 날짜·장소 예측했다

존 툴랜드의 6·25전쟁 1·2

존 툴랜드 지음



“대통령 각하, 나쁜 소식입니다. 38도선 전역에 걸쳐 공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개자식들을 막아야 돼!” 애치슨은 동의를 표하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곧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루먼은 먼저 의견부터 수렴하기 위해 모든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을 소집하도록 애치슨에게 요구 했다. “나도 워싱턴으로 즉시 돌아갈 것이오.” (1권 제2장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개자식들을 막아야 돼’ 중)

6·25전쟁은 서방세계의 위신이 달려 있는 문제였다. “현재 수백만의 사람들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천이 5000 대 1의 승률밖에 안되는 도박임을 알고 있습니다만, 나는 이런 도박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인천상륙작전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을 거두어야 10만 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었다. “우리는 인천에 상륙할 것입니다.” 맥아더가 결론지어 말했다. “나는 그들을 박살낼 것입니다.” (1권 제10장 ‘지금은 절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중)

다큐멘터리 작가이자 풀리처상 수상 경력이 있는 존 툴랜드의 6·25전쟁 1·2’은 마치 한 편의 전쟁영화를 보듯 6·25전쟁을 긴박감 넘치게 그려낸다.

그는 전쟁 다큐멘터리 전문가답게 6·25전쟁의 배경과 원인, 전개, 역사적 의 등 6·25전쟁의 전 과정을 방대한 자료를 섭렵해 총체적으로 그려면서도 세심하게 복원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 프로젝트와 마오쩌둥의 인천상륙작전의 날짜와 장소에 대한 예측, 6·25전쟁을 대하는 소련의 이중적 태도, 중공군뿐만 아니라 북한군을 배후에서 지휘한 마오쩌둥의 리더십, 그리고 전쟁포로의 대우 및 송환과 관련된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여러 문제도 새롭게 조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소련과 중국이 공모하여 전쟁을 일으켰다고 본 트루먼의 판단은 정확한 것인가? 미국이 남한 사람들을 꾹두각시로 이용해 전쟁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들의 견해는 옳은 것인가? 미국이 세균전을 자행했다는 공산주의들의



1950년 9월 15일 태평양 전투에서 중령의 해병대대가 월미도를 점령하는 모습을 맥아더 장군이 마운트 매킨리호 선상에서 지켜보고 있다. (바움출판사 제공)

줄기찬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는가? 6·25전쟁은 과연 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전쟁이었는가? 등 민감한 부분까지 작가 특유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풀어냈다.

저자는 특히 미 트루먼 대통령의 6·25전쟁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고 전제하고, 중국은 6·25전쟁이 일어나기 이를 전 고향에 돌아가 일하도록 인민해방군 100만 명에게 제대명령을 내렸고 소련은 비록 남침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많은 군사장비를 제공했지만 더 이상의 원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방대한 자료와 통찰력 있는 분석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미흡한 점도 눈에 띈다. 6·25전쟁에 대한 취급 범위와 대상의 방대성으로 인해 중요한 사실이 생략되거나 누락된 점, 인물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온에 티’다.

어쨌든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그동안 소홀했던 등총상잔의 비극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인식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이다.

〈바움·각권 1만6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책

▲조선의 사나이거든 풋발을 차라=천정환 성균관대 교수가 2010년 월드컵을 즐길 때 끝나지 않는 신드롬 = 친일과 반일을 넘어서……’의 개정판이다. 저자는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의 장례와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는 두 개의 중요사건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민족화 과정과 스포츠민족주의의 이해율로기의 작동 방식을 살폈다. 〈푸른역사·1만6000원〉



▲스물둘, 처음 만난 남자와 떠난 105일의 아프리카=평범한 여대생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아프리카 종단 여행기이다. 조짜 여행자인 황윤하씨는 우연히 카이로를 여행할 기회를 얻게 되고 거기서 초특급 짠돌이 능청백단 장기 여행자인 준호를 만나 함께 여행하게 된다. 우리가 알면 서로 물었다 아프리카의 생생한 모습을 손에 잡힐 듯 그려냈다. 〈예문·각권 1만4500원〉



▲쌍두의 악마 1, 2=눈리에 충실한 범인 찾기에 집중해 ‘일본의 앤리퀴’라고 불리는 추리 소설 작가 아리스가와 아리스의 대표작. 에이토 대학 추리소설연구회의 애가·아리스 콤비가 외부와 단절된 예술가 마을 주변에서 벌어진 연쇄살인사건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과정을 박진감 있게 다뤘다. 〈시공사·각권 9800원〉



▲참, 좋은 인연입니다=자칭 ‘셀카족’ 강금선씨가 훌로 자신을 찾아 떠난 여행길에서 만나 소중한 인연들을 사진과 글로 담아냈다. 질망 속에서 살았던 여자가 길을 떠나면서 삶의 용기를 얻어가는 과정이 솔직하게 그려져 있다. ‘무모한 용기로 나를 뜨려고자 한다’는 마흔아홉 중년 여성의 독백이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포토도 세이다. 〈bookin·1만3000원〉



▲불량 엄마=두 아이의 엄마이자 광고 카페라이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는 머피 미드페로가 쓴 육아교육 지침서. 저자의 육아 원칙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말고 엄마들도 적당히 게으름을 피우는 것, 가정과 직장에서 모두 성공하는 슈퍼 맘이 되려고 고군분투하는 직장 여성들에게 게으름 엄마가 되라고 조언한다. 〈민음인·9500원〉

▲정도전 상·하=이수광씨의 정도전을 다른 역사인물 소설, 주수도로 한양을 건설하고 일종의 헌법인 ‘조선경국전’을 펴내는 등 조선의 기틀을 세웠지만 끝내는 왕자의 난에 휘말려 역적으로 처형당한 비운의 인물 정도전의 생애와 사상을 드라마틱하게 구성했다. 〈쌤앤파커스·각권 1만1000원〉

▲화려한 수업=최근까지 맨해튼에 있는 명문 사립학교 돌린 스쿨에서 문학을 가르친 아니샤 라카니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장편소설. 사교육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교훈을 담았다. 높은 점수, 명문대학 진학, 사회적 지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현실에 대해 날카로운 일침을 가한다. 〈김영사·1만2000원〉

▲화려한 수업=최근까지 맨해튼에 있는 명문 사립학교 돌린 스쿨에서 문학을 가르친 아니샤 라카니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장편소설. 사교육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교훈을 담았다. 높은 점수, 명문대학 진학, 사회적 지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현실에 대해 날카로운 일침을 가한다. 〈김영사·1만2000원〉

## 20세기 대표하는 석학 27인과 대화



‘문화와 문명 간의 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콘스탄틴 폰 바를 티베니 20세기를 대표하는 석학과 대담을 염두에 두고 대담집 ‘휴먼리스트를 위하여-경계를 넘어서 세계 지성 27인과의 대화’가 나왔다.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 과학분과 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콘스탄틴 폰 바를 티베니는 문학(고디며, 푸엔테스, 오즈)·종교(파니카르, 푸파르)·인류학(레비스토로스)·과학(글urd, 프리고진)·음악(메뉴인)·건축(니마이어, 존슨) 등 각 분야에서 깊은 족적을 남긴 석학 27명을 직접 찾아가 문명의 공존과 종교, 과학기술의 가능성과 한계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저자는 장장 8년에 걸쳐 세계 곳곳을 누비며 이들을 만났다.

〈사계절·2만9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바람의 노래 …

송준 지음



“43세까지도 저는 밥값을 못하는 ‘인간 기생충’이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내가 친정에서 김치를 훔쳐와야 했을 정도였어요. 그런 처지에서도 문학만은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학은 내 삶의 지지대였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시절이었지만 ‘문학’이라는 ‘한국’만을 바라보며 생을 이어왔다고 말하는 소설가 이외수.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깊은 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중인 소설가 이외수를 인터뷰한 송준은 ‘세대를 초월하여 두루 통하는 열린 사유가, 거침 없이 왜곡된 시대를 꼬집는 당당함이 그를 빛나게 한다고 적었다.

저자는 장장 8년에 걸쳐 세계 곳곳을 누비며 이들을 만났다.

〈사계절·2만9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우리 시대 예술인 22명의 다양한 삶



시사저널 기자를 거쳐 프레랜서로 활동하며 많은 예술인들을 만나온 송준씨가 펴낸 ‘바람의 노래’자유, 그 무한고독의 속삭임’은 우리 시대 예술인들의 다양한 초상을 보여주는 책이다.

저자는 거의 하루 종일, 길게는 2박 3일 동안 22명의 예술가들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글을 썼다.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글의 분량이 아주 길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나눈 이야기 속에서 풀려 나온 글들을 깊이가 있다.

‘소리꾼’ 장사의를 만난 저자는 그의 노래에서 두 개의 얼굴을 본다고 적는다. ‘아니다’로 깔리는 어진함은 연민이자 위무가 되고, 역발산 기개세의 알레그로는 신명으로 폭발한다’고.

그가 전하는 장사의의 노래관은 이렇다. “이렇게 불러야지, 그런데 없슈, 노래가 지 혼자 기냥 알아서 흘러나오는 거지. 암니 돌아가셨을 때 가슴에서 울

컥 뛰어 하나 무너지길래 ‘비 내리는 고모령’을 불러 뒀던지.”

책에서는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사진작가 김홍희와 신미식, 화가로 돌아온 가수 정미조, 미술가 남궁선·최병수·안종세·최용건·김명희, 한국 춤의 명인 조갑자와 하용부, 가수 이상은 등도 만날 수 있다.

지역 출신 인물들도 눈길을 끈다. 고향인 보길도에 ‘옹진다녀온 민박집 겸 친집을 얹고 많은 이들에게 휴식을 준 후 밭을 쓴 삼 기행 애세이 ‘섬을 걸다’를 펴낸 강재윤과 목사·시인·동화작가·포크가수·화가·월드뮤직 기획자·오지여행가 등 수많은 직업을 안고 사는 임의진, 한국의 명인 우봉 이매방 선생 등이 그들이다.

인터뷰한 화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점도 이 책의 매력이다. 〈동녘·1만8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훤 011-802-2532  
(광주광역시 신동면, 대인동 삼성사거리 1번지)

##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촌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

기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촌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

기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여 조용히 편안하게 비밀보장

##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훤 011-801-009-5221  
(상무지구 이비동 김기장 1층)

## 토지매매

위치 면적(평) 월세 평당금액

상무지구 1,652㎡ (500) 상업 1,100만원

상무지구 2,247㎡ (680) 상업 1,200만원

상무지구 826㎡ (250) 상업 1,000만원

상무지구 3,422㎡ (1,035평) 양주 800만원

동신동 (22,000평) 전자 10만원

나주군 (15,300평) 조례 35만원

동원동 4,469㎡ (1,352) 준주거 350만원

## 건물매매

위치 임대